

6번

보기1번 - 선생님이 알려주신 유의사항에서 '논문과 달리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~'를 통해서 비전문가 독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다뤄야함이 맞다.

보기3번 - 선생님이 알려주신 유의사항에서 '관련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 사용'

보기4번 - 선생님이 알려주신 유의사항에서 '내용은 참신하게 구성' '불필요한 논란을 방지'

보기5번 - 선생님이 알려주신 유의사항에서 '객관적 설명을 적절히 사용'

답 2번 - 자료수집단계에서 자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다양하게 수집해야한다.

\*2번 보기가 보기1에 제시가 되어있지 않고, 기본적인 작문개념지식으로도 풀수 있는 문제이다.

21번

\*지문 이해하기

모순없음 > 연관 > 함축

=> 모순없음 안에 연관이 포함되고, 연관안에 함축이 포함된다.

함축으로 이해 했을 때 참이면 연관일때도 참이고, 모순없음일때도 참이라는 얘기

모순 없음일 때 참이 아니면 모순없음과 여집합 관계이므로 모순없음에 포함되는 연관, 함축과도 교집합이 없다.

=> 벤 다이어그램을 직접 그려보자

보기1번 - '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 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' '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'

보기2번 - '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고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다'

보기3번 - 정합적이다를 모순없음으로 이해했을 때, 예를 들어보면

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가 참일 때 은주는 민수의 동생이다 는 참이 아닌 명제가 된다.

이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은주는 민수의 동생이다가 함축되지 않으므로 참이 아니다.

보기5번 - '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,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'

답 4번 - 위의 지문이해하기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, 함축관계에 있는 명제는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이면서 모순없는 명제이다.

26번

보기 1번 - 별 A의 광도값 = 1의 제곱 \* 1의 네제곱 , 별B의 광도값 = 0.1의 제곱 \* 10의 네제곱 , 따라서 별 B의 광도값이 더 크다

보기 2번 - 별 A의 절대등급은 -1, 리겔의 절대등급은 -6.8 따라서 리겔이 더 밝다.

보기 4번 - 별 B는 133파섹 떨어져있는 북극성보다 거리지수가 크므로 더 멀리있다.

보기 5번 - 별 B는 겉보기등급이 1이고 , 북극성은 2 이므로 북극성보다 더 밝게보인다.

답 3번 - 별 B의 절대등급은 -6, 별A의 절대등급은 -1이므로 값이 5차이가 난다. 5등급 차이가 나므로 절대등급이 작은 B가 100배 더 밝다.

\*저는 이과생이고 지구과학2를 배워서 이 지문을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정도로 기본 배경지식이 있는 상태인데, 문과분들이 푸시기엔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문에 내용은 다 주어져있는데 아무래도 과학내용이고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

42번

보기의 내용을 먼저 분석하자

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환상을 일으킨다 ->선지4번

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져서 ->선지 3번

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

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 -> 선지 5번

청에 대한 적대감 -> 선지 1번

임경업에 대한 혐오 의식 -> 선지 2번

답 2번 - 청중은 낭독자가 내용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, 임경업이 잡혀가는 이유를 안다.